

# 左安東 右咸陽과 天嶺三傑論\*

김 윤 수\*\*

## <目次>

- |                     |                        |
|---------------------|------------------------|
| I. 緒: 左安東 右咸陽과 東方四賢 | III. 天嶺三傑              |
| II. 咸陽의 漢文學脈 및 南冥學派 | IV. 結: 天嶺三傑의 特徵과 向後 課業 |

## <국문 초록>

九拙庵 梁喜(1515(중종 10)~1581(선조 14)), 玉溪 盧禎(1518(중종 13)~1578(선조 11)), 靑蓮 李後白(1520(중종 15)~1578(선조 11)) 등 天嶺三傑로 일컬어지는 3현은 唐谷 鄭希輔에게 동문수학한 죽마고우로 다 함양군 지곡면(옥계)과 수동면(구졸암, 청련) 출생이다. 구졸암과 옥계는 함양 지곡에 묻히고 청련은 파주 선영에 묻혔다.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다들 효자이고 성리학자이다. 옥계는 효자 정려를 받았고 시호조차 文孝公이다. 옥계는 함양의 당주서원과 남원의 창주서원에 향사되었고 청련은 강진의 서봉서원에 향사되었다. 청련도 함양의 서원에 향사할 필요가 있다. 구졸암은 함양의 구천서원에 6군자로 같이 향사되었다. 3현을 향사하는 삼결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

옥계와 청련은 시조를 남긴 시조시인이고 청백리이고 판서를 지낸 고관이

\* 이 글은 2014년 8월 9일(토) 지리산문학관에서 한국한문고전학회와 지리산문학관이 공동 개최한 지리산문학 천령삼결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증보·수정한 것이다.

\*\* 지리산문학관 관장 / study@insan.com

다. 청련은 청백리의 위상에 맞게 文淸公의 시호가 내려졌으나 구졸암만 시호가 없다. 문집도 옥계와 청련은 단행본을 남겼으나 구졸암은 『용성세고』에 한 부분을 차지하여 소략하다. 『구졸암집』의 단행본 간행이 필요하다. 구졸암은 벼슬이 참판에 그쳤으나 증직으로 판서를 받아 사후 위상은 삼걸이 같아졌다.

천령삼걸인 구졸암 양희와 옥계 노진과 청련 이후백은 판서급 인물로 학덕을 겸비하여 지역 문화와 중앙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령삼걸은 함양을 빛낸 인물로서 함양의 자랑스러운 인재배출, 덕성함양, 한문학, 선비문화의 모범·전형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좌안동우함양, 함양한문학, 천령삼걸, 구졸암 양희, 옥계 노진, 청련 이후백

## I. 緒: 左安東 右咸陽과 東方四賢

경남 함양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1번지이다. 지리산 1번지 함양은 근자에 左安東 右咸陽이란 자부심 강한 문자를 즐겨 써왔다. 효종 8년(1657)에 편찬된 지방지인 『천령지』나 1956년에 한문으로 된 『함양군지』에는 이런 문자가 없으니 현대에 와서 만든 문자일 것이다. 1984년 2월 25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함양골 노인들은 지금도 좌강 안동, 우강 함양임을 자부하고 있다”<sup>1)</sup>고 하였으니 오래된 표어일 듯하다.

출처는 미상이나 안동의 退溪 李滉 선생, 함양의 一蠹 鄭汝昌 선생 배출을 자랑스러워하여 만든 문자일 것이다. 江左[낙동강 동쪽]의 안동과 江右의 함양, 좌안동 우함양의 고장, 한국 한문학의 쌍벽 고을 함양의 숫자 성어로 나타내는 대표인물이 天嶺三傑이다.

지리산 1번지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이란 자긍심 강한 문자를 즐겨 써왔는데, 안동의 퇴계 이황 선생과 쌍벽으로, 문묘종사 대현인 함양의 일

1) 「향맥 고장문화의 현장을 찾아 함양」 기사 참조.

두 정여창 선생 배출을 긍지로 여겨 만들어 쓰는 문자일 것이다. 일두 선생이 함양 출신이 아니라면 우함양이란 자부심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경북 성주의 유림들은 좌안동 우성주라고 자부한다. 寒岡 鄭述와 東岡 金宇顛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寒岡과 東岡, 兩岡은 다 퇴계와 남명의 제자로 퇴계의 안동과 필적하여 병칭하기는 그렇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좌안동 우함양, 이 문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일두 선생은 東方四賢이다. 寒暄堂 金宏弼 선생과 일두 선생은 估畢齋 金宗直 선생의 문하생으로 동문이고 현풍과 함양의 중간지대인 거창과 함천에서 자주 만나 강화하고 죽음도 함께 한 막역한 지우요, 학문적 동반자였다. 그래서 사후 문묘에 나란히 배향된 것이다.

동방사현은 모두 유교의 순교자들이다. 한훤당과 일두는 조선 최초의 선비수난사인 무오사화의 순교자이고, 한훤당의 제자인 靜庵 趙光祖 선생은 기묘사화, 晦齋 李彦迪 선생은 정미사화의 순교자이다. 유교에서는 성인의 위상을 극존하여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孟 이후로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지만 천주교의 시복·시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동방사현은 순교자로 모두 성인인 것이다.

동방오현으로 칭해지는 퇴계 선생은 순교자가 아니고 학덕의 우월성에서 문묘에 종사된 것이어서 시복·시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자, 현인이고 성인은 아니다. 성균관장이 교황을 알현하듯 유교도 천주교의 순교자 성인 극존의식을 수용하여 동방사현을 동방사성으로 추앙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성인인 일두 선생과 나란히 현인인 퇴계 선생을 강조하여 자부하는 좌안동 우함양의 개념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차라리 한훤당과 나란히 칭하는 좌현풍 우함양이 맞을 것이다. 좌안동이라면 강좌의 퇴계 선생과 영남학맥을 반분하는 강우의 남명 선생을 병칭하여 좌안동 우산칭, 좌안동 우합천, 또는 좌퇴계 우남명이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星湖 李瀾은 소백산 아래의 퇴계와 지리산 동쪽의 남명을 언급하고 경북은 인을 숭상하고[上道尙仁], 경남은 의를 주장한다[下道主義]라고

비교하여 정의하였으니<sup>2)</sup> 좌퇴계 우남명의 저의가 있는 것이다.

안동이 유명하니까 안동에 필적하는 동네라는 뜻으로 좌안동 우함양이란 성어가 형성되어 자긍심을 북돋았을 것이나 일두 선생의 성인 위상을 생각한다면 좌안동에 비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동방사현은 宣祖大王의 어명이나 마찬가지다. 1570년(선조 3) 12월에 선조대왕은 성리의 학문에 뜻을 두고 불세출의 현인인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의 저술을 편집하라고 柳希春에게 명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國朝儒先錄』이라고 명명하였고, 천령삼걸인 승정원 도승지 겸 예문관 직제학인 정려 이후백에게 서문을 쓰게 하였다.<sup>3)</sup>

『국조유선록』은 편찬 이후 1572년에 花潭 徐敬德의 문인인 朴淳이 서경덕을 끼워 넣고자 하였지만 실패했고, 이황도 별세(1570년(선조 3), 12월 8일 졸) 후 1572년에는 趙廷機가 삽입시키고자 하였지만 宣祖와 鄭惟一은 반대하였다.<sup>4)</sup> 선조 때까지는 동방사현이 대세였다.

동방오현은 1610년(광해군 2) 9월 5일에 일괄 문묘종사의 명이 내린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의 五賢臣을 지칭한다. 동방사현은 『국조유선록』의 편찬 명이 내린 선조 3년 초부터 줄기차게 문묘종사 요청이 있었지만 사체가 중하다고 윤택하지 않다가 광해군 때 퇴계를 더 하여 성사된 것이다.

來庵 鄭仁弘은 자기 스승 南冥 曹植이 배제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이언적과 이황의 종사 문제를 극력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성균관 청금록[유생 명부]에서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sup>5)</sup>

2) 李瀛, 『星湖僊說』(『고전번역총서』), 「東方人文」.

3) 李後白, 『靑蓮先生集』(『韓國文集叢刊』), 「國朝儒先錄序」.

4) 『宣祖實錄』, 「선조 5년 임신(1572, 용경 6), 9월 4일(정해) / 경연에서 대간이 김명윤의 예장을 극력 반대하다 기사»; 「선조 5년 임신(1572, 용경 6), 9월 21일(갑진) / 조강에서 수찬 조정기가 이황의 저술을 『유선록』에 실기를 청하나 듣지 않다 기사」 참조.

5) 『光海君日記』, 「광해군 3년 신해(1611, 만력 39), 4월 10일(기묘) / 이무 등이 정인홍이 선현을 헐뜯었다는 이유로 유적에서 삭제하고 방을 내건 일」, “반

## II. 咸陽의 漢文學派 및 南冥學派

### 1. 漢文學派

지리산 1번지 함양은 한국한문학의 본향이다. 한국한문학의 비조인 孤雲 崔致遠 선생이 신라시대 천령군 태수를 지내시며 문학의 향기를 남기셨는데 후진 양성은 알려진 사실이 없으니 학맥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문학풍은 온전히 전해진다.

영남인재의 태반을 양성한 영남학과의 종장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함양군수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모두 상실하였다. 세종대왕이 기르신 인재는 계유정난에 일망타진되고 성종대왕이 기르신 인재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일거 소진되었으니 선비의 나라에서 선비들의 통한의 숙명이었다.

점필재의 처남이자 문인인 김천 출신 梅溪 曹偉 선생도 함양군수를 지내며 스승의 업적을 선양하였다. 점필재의 함양 제자로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포함하여 시서화 삼절인 潘溪 俞好仁, 藍溪 表沿沫, 점필재와 천왕봉을 등정한 進士 韓仁孝, 一蠹와 濯纓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한 晦軒 林大소 등이 있다. 점필재의 함양 학맥은 제자와 재진제자(盧友明은 정여창의 제자) 정도에서 그치고 이어지지 못했다.

함양의 학맥은 점필재 김종직과 남명 조식이 시간적 쌍벽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남명에게 직접 집지하지는 않았으나 玉溪 盧禎은

---

학(泮學)의 옛 규례에, 조사(朝士)로서 혹 유림(儒林)에 죄를 얻게 되면 『청금록(靑衿錄)』에서 그 이름을 삭제함으로써 벌칙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정도에 어긋나는 규정이었다. 이때 와서 이무 등이 ‘정인홍이 선현을 헐뜯어 사림에 죄를 얻었다’는 이유로 방(榜)을 내걸어 이름을 삭제하였는데, 대개 인홍은 무오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그 이름이 유적(儒籍)에 실려 있었던 까닭이었다.”

남명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옥계의 함양 제자로는 松亭 姜文弼이 있다. 梅庵 曹湜, 竹軒 鄭摯, 송정 강문필이 막역한 친교를 맺어 梅竹松三友라고 일컬어졌다.<sup>6)</sup>

조선후기에 실학의 종장 燕巖 朴趾源 선생이 안의현감을 지내며 후진을 양성했는데 뚜렷한 제자로 알려진 인물은 없다. 연암실학단의 일원인 雅亭 李德懋 선생도 함양의 사근도 찰방을 지냈지만 후학 양성은 여가가 없었다.

2009년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지리산문학관에서는 仁山 金一勳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함양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함양 근현대 9인의 학문세계」라는 주제로 대학교수 10인의 연구 발표와 10인의 논평이 있었다. ①綠此 黃五(1816~?), ②扶溪 田秉淳(1816~1890), ③華軒 徐璘淳(1827~1898), ④三元堂 許元弼(1828~1891), ⑤眞菴 李炳憲(1870~1940), ⑥秋帆 權道溶(1877~1963), ⑦春溪 河琪鉉(1880~1967), ⑧厲菴 鄭道鉉(1895~1977), ⑨仁山 金一勳(1909~1992)[2편 발표]<sup>7)</sup> 등인데 함양이 배출한 근현대 한문학의 종장들이다. 필자가 쓰기는 했으나 미완이라서 발표하지 못한 懼庵 盧光懋(1808~1893)를 포함하여 『함양구현논총』으로 묶어 지리산문학관 함양학연구소에서 간행할 예정이다.

여암 정도현은 노론 良齋 田愚(1841~1922)의 문인이고, 추범 권도용과 진암 이병현은 남인 侁宇 郭鍾錫(1846~1919)의 문인이고, 삼원당 허원식과 小松 盧泰鉉은 기호 남인 性齋 許傳(1797~1886)의 문인이다. 소송은 溪堂 柳疇睦(1813~1872)의 문인이기도 하다. 부계 전병순은 노론 梅山 洪直弼(1776~1852)의 문인으로 蘇輝冕·趙秉惠·韓運聖·任憲晦와 함께 梅門五賢으로 일컬어졌다. 임헌회는 간재 전우의 스승이다. 춘계 하기현과 화현 서인순 및 녹차 황오는 특정 학맥은 없으나 노론 학

6) 朴汝樑, 『感樹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天嶺孝烈錄」, “竹軒鄭摯字仲尹居于大樹村 以孝友行誼 稱於鄉里 與曹湜 姜文弼爲友 三人結爲梅竹松 世因分稱之”

7) 김윤승, 한시집 『咸陽九景』, 다운샘, 2008.

자이다.

## 2. 南冥學派

조선중기에 함양은 남명학파의 고장이 되었다. 남명 조식은 퇴계 이황과 함께 동갑으로 쌍벽의 대학자이다. 2현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좌와 강우의 학파를 주도하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불행하게도 남명은 퇴계와 달리 꾸준히 계승되지 못하고 퇴계학파에 흡수되었다. 그 원인은 남명의 수제자 내암 정인홍에게 있다고 하겠다.

정인홍이 남명을 제외한 퇴계의 문묘종사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학계의 이단아가 되고 인조반정에 역적으로 참수됨으로써 그 불똥이 남명에게 튀어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오명과 악명이 섞여 인조반정 이후 시대에는 남명의 후학이라고 표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함양에서 남명의 제자로는 일두를 모시는 남계서원을 건립한 介庵 姜翼, 남명이 삼가 포연대에서 목욕할 때 수행한 藍溪 林希茂와 朴承元<sup>8)</sup>, 남명의 수제자 내암 정인홍의 처남인 西溪 梁弘澍 등이 있다. 梅村 鄭復顯과 매암 조식도 문인으로 분류된다.

박승원은 남명 선생이 49세(1549, 명종 4)가 되던 해 8월에 거창 포연대에서 목욕하자 임희무와 함께 달려가 같이 목욕한 선비로 풍기군수 愼齋 周世鵬이 1544년(중종 39) 4월에 청량산을 유람할 때 군청에서 전송한 서생일 것이다.<sup>9)</sup> 그의 아내가 연안이씨로 청련 이후백의 누이동생이다. 부군의 사후 4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3년 동안 미음만 먹

8) 曹植, 『南冥先生集』(『韓國文集叢刊』), 「浴川(己酉[1549]八月初) 偶遊於紺岳山下(咸陽文士林希茂 朴承元 聞而馳到 侍與之 同浴焉)」.

9) 周世鵬, 『武陵雜稿』(『韓國文集叢刊』), 「遊清涼山錄」, “嘉靖甲辰[1544]四月初九日丁丑 將遊清涼山 早發豐基郡 郡齋送之者 書生醴泉張應門 密陽李鶴齡 咸陽朴承元 豐基權叔鸞 咸安李機 漆原裴億 漢陽閔宗中 密陽柳芬 醴泉權鈞 壽 權好金”

고 16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 3년상 동안 어육을 갖추어 상식하였다.<sup>10)</sup>

내암 정인홍(1536~1623)은 함양에서 처가살이도 하였고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내암이 처형된 뒤에 스승을 위하여 心喪 3년을 치르고 소식을 한 白川 姜應璜(1559~1636)은 조정에서 처벌 논의가 있었지만 방치되었다. 강응황은 서울 출생으로 함양읍 백천리 본백마을에 살았고 유림면 옥매리 차의마을 위천 가 솔숲에 翠寒亭을 짓고 조용히 경학을 연구하였다.<sup>11)</sup> 내암이 일찍이 시를 지어 주었다.

渭畔林松舊 松間一屋新 平生夢想地 今日得幽人<sup>12)</sup>

그런데 내암의 제자로 함천 사람인 嶧陽 文景虎(1556~1619)의 문집에도 3글자만 틀리고 똑같은 시가 실려 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집에 잘못 실린 것이다.

渭畔林松舊 搆亭一屋新 平生夢想地 今日得幽人<sup>13)</sup>

역양은 취한정의 원운에 차운한 시도 있다. 원운은 將·常·香·霜·觴이다. 역양 외에도 많은 이가 이 원운에 차운한 시를 남겼다.

蒼松綠水冷交將 斗覺幽居趣異常 氷泮春潭新月色 露凝秋葉晚風香  
庭前最有梅撐雪 窓外兼看菊傲霜 想得主人寒計活 一亭相對侑清觴<sup>14)</sup>

- 
- 10) 朴汝樑, 『感樹齋先生文集』, 「天嶺孝烈錄」, “朴君死 一勺水不入口者四日 嚼米飲者三年 不食肉者十五六年 三年上食 必具魚肉”
- 11) 姜應璜, 『白川先生遺集』, 「墓誌」, “公自少不屑舉子業 就其閑寂 鑿一方池 池傍列植青松 因搆一亭 扁以翠寒 靜處端坐 留意經學 稍長 聲譽大敷 弱冠 出入於月沙李先生之門”
- 12) 鄭仁弘, 『來庵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卷1, 「翠寒亭贈姜渭瑞」.
- 13) 文景虎, 『嶧陽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卷1, 「翠寒亭(姜應璜溪亭)」.
- 14) 文景虎, 『嶧陽先生文集』 卷1, 「次翠寒亭韻」.

慕亭 裴大維(1563~1632)가 취한정에 차운한 시를 보면 운자만 같고 나머지 문자는 다 다르니 내암과 역양의 시는 같은 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는 『모정집』 목록에는 있고 본문에는 없는데 다시 습유에 실렸다.

見說林亭勝 青寒活畫新 分明武陵路 魚鳥引遊人<sup>15)</sup>

孤臺 鄭慶雲(1556~?)은 唐谷 鄭希輔의 손자로 함양의 내암 수제자에 해당한다. 정경운의 사촌 자부인 感樹齋 朴汝樑(1554~1611)도 광해군 3년(1611) 사헌부 지평일 때 내암이 성균관 청금록에서 삭제 당하자 적극 변호하였다. 선조 36년(1603)에 함양의 生員 姜縑(1568~1619) 등 수십 명이 상소하여 정인홍을 비난한 서계 양홍주를 공박하였다. 濼陰 姜縑은 내암과는 반목한 한강 정구의 장녀서이기도 한데 내암을 위하여 극력 변호한 문인이었다.

그밖에 風臯 盧胄(1557~1617), 迂溪 盧士尙(1559~1598), 경재 박선(?~1597), 松灘 鄭弘緒(1571~1648) 등의 문인이 있다.

### 3. 介庵 姜翼과 濼溪書院

남명의 함양 제자 개암 강익(1523(중종 18)~1567(명종 22))은 1552년(명종 7)에 남계서원을 세웠다. 남계서원은 한국에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2년(중종 37)에 세운 한국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書院(1550년(명종 5) 사액. 紹修書院)과 황해도 관찰사 재임 시 1550년(명종 5)에 해주에 세운 首陽書院(1555년(명종 10) 사액. 文憲書院으로도 불림)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서원이다.

그러나 남계서원을 세운 개암이나 당시 사대부는 소수서원 이후 처음

15) 裴大維, 『慕亭集拾遺』, 「次翠寒亭韻(在咸陽)」.

서원을 세웠다고 인식하였다. 아마도 해주의 수양서원 건립 사실을 몰랐던 듯하다. 그래서 남계서원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으로 알려진 것이다. 주세붕에 이어 강익이 서원을 세웠으니 사람으로 치면 두 번째가 맞기도 하다.<sup>16)</sup>

북한에 있는 문헌서원을 제하면 남한에서는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서원이 되는 셈이다. 1566년(명종 21)에 사액되었으니, 1553년(명종 8)에 영천에 세워진 圃隱 鄭夢周를 모시는 臨臯書院(1554년(명종 9) 사액)보다 늦다. 사액서원으로는 네 번째 서원이 된다.

남계서원의 건립은 민간 주도라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공력도 시간도 더 들었다. 1552년(명종 7)에 남계서원 창건을 발의하여 강당을 건립하였으나 공사비를 대주던 함양군수 徐九淵이 이임하자 공사가 중지되어 강당에 기와도 없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지체되다가 1559(명종 14)에 군수 尹確의 도움으로 강당과 부속시설-창고, 주방, 목욕간, 담장-을 완공하고 사당을 건립하였다. 1561년(명종 16)에 일두 선생[시호 문헌공]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서원 건립에는 당시 군수들의 지원이 있었지만 선비들도 질 지을 때 시주하듯이 곡식을 출연하여 부조하였다. 葛川 林薰도 성금 모집에 적극 동참하여 남계서원 건립에 일조하였다.<sup>17)</sup>

1564년(명종 19)에 군수 金字弘[동강 김우옹의 형]이 부임하여 부조하여 동재와 서재를 건립하였다. 비로소 남계서원이 前學後廟[앞에 강당,

16) 姜翼, 『介庵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濼溪書院記」, “噫 書院之設於吾東者 周茂陵竹溪之後 始興於斯 … 嘉靖丙寅仲秋丁亥 晉山姜翼記”; 朴汝樑, 『感樹齋先生文集』, 「天嶺孝烈錄」, “公遂倡議 請于朝 立書院以祠之 我國建院 自竹溪以後 此爲第一”

17) 林薰, 『葛川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天嶺書院收穀通文」, “今郡守又能趾 甚美而繼其役 然其墻庭之設 藏修之備 官力之所不逮者猶多也 天嶺之儒 各出 斗斛之穀 以備其需 而猶不足充其用 … 吾鄉之儒 盍亦毋慳斗筲之費 用扶崇 建之功 … 今夫浮屠人 營佛刹勸其資 雖頑惑之人 猶不惜若干之費 況於爲吾 道立幟 誘吾儒向善 而尙不用心力者乎”

뒤에 사당]와 기숙사 등의 규모를 완비하여 완공된 것이다. 뒤이어 2년 뒤 1566년(명종21)에 사액을 신청하여 남계서원으로 사액되어 국가 공인 서원이 된 것이다. 소수서원, 임고서원, 수양서원에 이어 네 번째 사액서원이면서 완공시점을 논하면 또한 소수서원, 수양서원, 임고서원에 이어 네 번째 서원이 된다.

그러나 벼슬아치인 주세붕이 세운 관립 서원인 소수서원, 문헌서원과 달리 벼슬하지 않은 사대부가 세운 민립 서원으로는 남계서원이 첫 번째 서원이다. 남계서원은 한국 최초의 민립 서원이다. 남계서원은 다른 최초 기록도 있다. 소수서원과 문헌서원은 安珦과 崔沖, 고려 유학자를 모신 서원이거나 남계서원은 조선조 최초의 조선 유학자를 모신 서원이다. 동방사현 및 문묘 배향 18현 중 조선조 유학자를 모신 서원으로는 한국 최초의 서원이다.

일두 정여창을 모시는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에 건립되고, 일두의 친구인 한훤당 김굉필을 모시는 道東書院은 1568년(선조 1)에, 한훤당의 제자 정암 조광조를 모시는 竹樹書院은 1570년(선조 3)에, 회재 이언적을 모시는 玉山書院은 1572년(선조 5)에, 퇴계 이황을 모시는 陶山書院은 1574년(선조 7)에, 남명 조식을 모시는 德川書院은 1576년(선조 9)에 건립되었으니 개암은 조선조 유현 서원 건립운동의 선구자이다.

남계서원은 한국 최초의 ‘벼슬아치가 아닌’ 선비가 세운 서원이다. 한국 최초의 조선조 유현을 모신 서원이다.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9대 서원-소수서원·도산서원·병산서원·옥산서원·도동서원·남계서원·필암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의 하나이다.

#### 4. 唐谷 鄭希輔와 咸陽門徒

남명의 제자인 개암 강익과 남계 임희무 및 매촌 정복현과 매암 조식은 당곡 정희보의 문인들이다. 養性軒 都希齡도 당곡의 문인이다. 당곡은 본디 남해 출신으로 함양에 이주하여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천령

삼걸이라고 불리는 九拙庵 梁喜(1515(중종 10)~1581(선조 14)), 玉溪 盧禎(1518(중종 13)~1578(선조 11)), 靑蓮 李後白(1520(중종 15)~1578(선조 11))도 모두 당곡의 문인이라고 한다. 당곡의 문인이라고 하지만 청련의 경우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다.

옥계 노진의 당곡 묘지명의 말을 빌리면 호남과 영남의 인재 절반은 모두 당곡의 문인이라고 할 만큼 당곡은 지역 인재 양성에 공이 지대하였다. 다만 당곡은 중앙무대에 알려지지 않은 향선생으로서 초학 지도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것이다.

구졸암의 신도비명에는 옥계와 청련과 서로 절차탁마하며 학문한 기록은 있어도 몇 살 때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서술하지 않았다. 어려서 총명하여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자라서 옥계 노진과 청련 이후백과 서로 절차탁마하며 학문하니 당시 천령삼걸이라고 칭하였다.<sup>18)</sup> 구졸암은 당곡 갈명에서 夫子 云云하였으니 당곡의 문인이다.

옥계의 연보에는 15세(1532, 중종 27) 때에 문장으로 유명한 당곡에게 과거문체와 『韓文』 등을 배웠다<sup>19)</sup>고 하였고, 청련은 尤庵 宋時烈이 쓴 행장에서 나이 겨우 10세 때(1529, 중종 24) 옥계와 구졸암과 같이 表寅에게 배웠다고 하였는데<sup>20)</sup> 표인은 미상의 인물이다. 10세라는 것이 정확한 나이는 아닐 것이니 옥계 15세(1532, 중종 27) 때로 보면 청련의 나이

18) 梁喜, 『龍城世稿』, 『九拙菴稿』, 『神道碑銘[李德壽]』, “幼聰慧異凡兒 及長 與盧玉溪禎 李靑蓮後白 相切磋爲學 時稱天嶺三傑”(李德壽, 『西堂私載』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참조.)

19) 盧禎, 『玉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年譜」, “嘉靖十一年(我中宗恭僖大王二十七年)壬辰 先生十五歲 嘗讀大學章句輯釋 悉皆研精熟復 則頗有疑晦處鄉有鄭君希輔 以詞學名於南中 晚不利於場屋 以訓後生爲事 先生首以大學就問 則鄭君從先生唯唯 先生是時 已見大義於聖門之學 而顧無名師可從以問 遂有悵然之志 從衆學科文於其門 仍受韓文等書”

20) 李後白, 『靑蓮先生集』, 「行狀[宋時烈]」, “年甫十歲 與盧玉溪禎 梁牧使喜 學于表公寅之門 一時學徒十五人 以次受學 公年最少 常居末席 聽諸人所受書 一皆背念 其中有性理大全書矣 表公聞其然 招使試之 公遍誦十四人書如熟讀者然 表公大加驚異曰 未知古有如此兒否”

13세 때에 옥계와 구졸암과 같이 당곡에게 배운 것이다. 그러면 구졸암은 18세에 배운 것이니 만학이 된다. 자라서[及長] 같이 배웠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천령삼걸은 아니지만 같은 동향 친구로 개암 강익이 있는데 개암은 15세(1537, 명종 32) 때에 당곡 정희보에게 수학하였다. 그때 동문이 옥계, 청련, 구졸암이었다.<sup>21)</sup>

표인이라는 존재는 다른 기록에서 찾기가 어렵다. 옥계나 구졸암의 사적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일찍이 거창에서 표인의 후손을 만나 그 행장을 본 적이 있는데 영의정 운운하였으니 실존 인물이기에는 한데 사적이 부족하다. 거창에 표인이 있고 함양에 당곡 정희보가 있어 천령삼걸의 초학 시절 가르친 것은 사실인데 같은 제자들을 같은 시기에 가르쳤을 리는 없으니 한쪽이 제자 배출을 과장한 것이다.

구졸암 양희는 이후백의 만사에서 “同鄉同里又同師”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스승은 정희보인가? 구졸암과 옥계의 행적에 표인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당곡일 것이다. 청련은 구졸암과 함께 또한 옥계나 개암도 같이 당곡에게 수학한 것이니 당곡의 문인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 당곡 정희보는 판서급 제자인 천령삼걸을 길러낸 위대한 교육자였다.

### Ⅲ. 天嶺三傑

#### 1. 總論

구졸암이 이후백과 “同鄉同里又同師”라고 하였는데 구졸암은 함양군

21) 姜翼, 『介庵先生文集』, 「年譜」, “嘉靖十六年丁酉 先生年十五歲 疾漸有效 承仕公乃曰 人而不學 無異禽獸 奈何甘與蠢蠢者同歸 先生瞿然執書 就學於同閭 唐谷鄭斯文希輔之門 其門人如盧玉溪(禎) 李青蓮(後白) 梁九拙(喜) … 唐谷試教以史 句讀分明 音韻清朗 有若宿業者然”

수동면 우명리에서 태어났고, 청련은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에서 태어났으나 살기는 우명리에서 거처하였으니 마을이 같다. 이후백은 호조판서로서 선조 11년(1578)에 휴가를 받아 함양에 성묘 왔다가 10월 7일에 병사하였다. 파주 선영으로 반장하였다.<sup>22)</sup>

이후백은 옥계 노진보다 뒤에 별세하여 옥계에 대한 만사를 지었는데 “童稚情親不暇言”이라고 하여 죽마고우로서의 애도의 정을 표하였다. 같은 해 8월 23일에 별세한 노진보다 한 달 남짓 뒤에 이후백이 별세하여 함양 출신의 정승 후보 판서 둘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함양에서는 정승이 배출되지 못하였다.

西堂 李德壽가 찬술한 구졸암의 신도비명에 “옥계 노진과 청련 이후백과 함께 서로 절차탁마하여 학문을 하니 당시 천령삼걸이라고 칭하였다”<sup>23)</sup>고 하였다. 삼걸은 차례로 소과인 사마시[생원, 진사]에 합격하고 대과인 문과에 급제하여 나란히 벼슬길에 나아갔다.

- 사마시 합격

- 구졸암: 1540년(중종 35)
- 옥 계: 1537년(중종 32)
- 청 련: 1546년(명종 1)

- 문과 급제

- 구졸암: 1546년(명종 1)
- 옥 계: 1546년(명종 1)
- 청 련: 1555년(명종 10)

구졸암은 이조참판[차관]을 지내고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니 증직이라도 판서[장관]가 된 것이다. 옥계와 청련은 판서를 지냈으니 삼걸

22) 李後白, 『靑蓮先生集』, 「行狀[宋時烈]」, “戊寅以戶曹判書 乞暇省墓于咸陽 十月初七日病卒 … 歸葬于坡州廣灘上先塋之側子坐午向之原”

23) 주18) 참조.

이 다 장관급 인물인 것이다. 함양에는 이후 판서 이상 총리급 정승이 배출되지 않았으니 천령삼걸이 함양 인재의 전성시대였다.

이덕수의 신도비명에 의하면 숙종 27년(1701)에 함양의 선비들이 구졸암의 조부인 逸老堂의 유지에 龜川書院을 세워 구졸암과 琴齋 姜漢, 남계 표연말, 청련 이후백을 향사한다고 하였다. 옥계 노진은 이미 漕注書院에 향사하므로 병향하지 않은 것이다.

구천서원에는 현재 春塘 朴孟智·逸老堂 梁灌·藍溪 表沿沫·琴齋 姜漢·九拙庵 梁喜·愚溪 河孟寶에 1983년 西溪 양홍주를 추가 배향하였으니, 청련 이후백이 빠진 것이다. 청련은 외조모의 고향인 전남 강진으로 이사 가서 자손이 강진 사람이 되었고, 강진 선비들이 서원을 세워 향사하므로 함양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다. 옥계 노진도 처가인 남원에서 살다가 후손이 남원 사람이 되어 종손은 남원시 주천면에 살고 있다.

청련을 모시는 서원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4호 博山書院이다. 소재지는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박산마을이다. 1590년 瑞氣山 아래 월곡리 [현 강진읍 서산리 월곡마을]에 ‘서봉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1712년 청련 선생의 제자인 玉峰 白光勳, 孤竹 崔慶昌, 竹谷 林蒼, 남계 金淳 4선생을 추배하였다.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되었다. 1924년 본향 사림의 발의로 현재의 작천면 박산으로 옮겨 復設하고 액호도 ‘박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함양에서 태어나고 죽어 고향의식을 가진 천령삼걸 청련 이후백이 함양의 서원에 모셔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조선시대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다. 정조 때 사근도 찰방을 지낸 아정 이덕무의 함양서원 소개 글을 전문 인용하여 논한다.

함양에는 명현들이 한 세대 동안 성대했었는데 지금은 명현들의 유풍(遺風)이 없어졌다. 그곳에는 서원(書院)이 다섯 곳이나 있는데 남계서원(藍溪書院)과 당주서원(滄洲書院)은 바로 임금이 편액을 내린 서원이다.

남계서원은 문헌공(文獻公) 정일두(鄭一蠹)를 주향으로, 동계(桐溪) 정온(鄭蘊)·개암(介菴) 강익(姜翼)을 배향하였고, 뇌계(濡溪) 유호인(兪好仁)은 서원 안에 별사(別祠)를 지어 향사하였다.

당주서원에는 옥계(玉溪) 노진(盧禎)을 향사하고, 백연서원(柏淵書院)에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을 명환(名宦)으로 향사한다.

도곡서원(道谷書院)에는 덕곡(德谷) 조효동(趙孝叞)·죽당(竹堂) 정육을(鄭六乙)·송재(松齋) 노숙동(盧叔全)을 향사하는데, 죽당은 일두(一蠹)의 아버지이며 송재는 옥계(玉溪)의 증조부이다.

귀천서원(龜川書院)에는 남계(藍溪) 표연말(表沿沫)·춘당(春塘) 박맹지(朴孟智)·구줄(九拙) 양희(梁喜)·일로(逸老) 양관(梁灌)·우계(愚溪) 하맹보(河孟寶)·금재(琴齋) 강한(姜漢)을 향사한다.

그런데 동계(桐溪)는 안음(安陰) 땅에서 낳았는데 인근(隣近)이라는 연유로 배향되었고,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도 함양 땅에서 태어났는데 홀로 배향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sup>24)</sup>

위의 도곡서원 기사에서 德谷 趙孝叞과 竹堂 鄭六乙은 오류이다. 조효동은 德谷 趙承肅의 증손으로 호는 南溪요 일두 선생을 효행으로 천거한 인물이고 배향되지 않았다. 정육을은 竹堂 鄭復周의 아들이요 일두 선생의 부친으로 또한 배향되지 않았다.

2014년 9월 26일에 함양문화원 주최 함양명현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송재 노숙동과 일로당 양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일로당이 함양 사람인 것은 다 아는 듯한데 노숙동은 함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송재 노숙동은 풍천노씨 함양 입향조이다.<sup>25)</sup> 본디 창원 사람으로 문과 급제하고 호조참판과 경상도 관찰사 등의 벼슬을 지내고 청백리에

24) 李德懋, 『靑莊館全書』(『고전번역총서』) 卷68, 「寒竹堂涉筆」 上, 「함양(咸陽)의 명현(名賢)들」.

25) 鄭秀民, 『天嶺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인물」, “盧松齋 … 始來自昌原 爲竹堂之外孫婿 居于介坪里 咸之有盧氏 自公而始”

녹선되었다. 진사 金黈의 딸에게 장가들어 함양 개평에 와서 살았고 묘소도 지곡면 부야마을 申義齋 위에 있다. 아들이 盧盼이고 손자가 信古堂 盧友明, 증손이 옥계 노진이다.

김점은 본관은 경주로 진사이다. 하동정씨 죽당 정복주의 사위로 개평에 와서 살았다. 노우명은 고아가 되어 할머니 경주김씨가 길렀는데 매우 어여빠하여 토지와 노비를 후하게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다 사양하였다.<sup>26)</sup> 그런 부친의 재물 초연 정신이 옥계를 청백리가 되게 한 바탕인 것이다.

## 2. 九拙庵 梁喜와 南冥

구졸암의 신도비는 함양군 수동면 대고대라는 명승지에 있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옥계의 신도비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곡면 보산리 묘소 옆에 세워져 있다. 청련의 자취는 남아 있지 않다. 강진에서 박산서원을 세워 청련을 향사하고 있다. 연안이씨 종중 문적 박물관에 2013년 8월 13일 청련공 이후백 시호 교지 등 고문서 120점이 기탁되었다.

옥계 노진은 남명 조식보다 17세 연하인데 짐지하지 않았으니 사제지간은 아니지만 가까이 종유하였으니 제자 같은 후학이라고 하겠다. 구졸암은 남명선생과 생전에 친했던 것으로 짐작되나 사후의 특수한 관계로 기록이 없어 확증하지는 못한다. 청련은 남명보다 19세 연하고 조정에 벼슬하였으므로 남명이 서울에 입조했을 당시 조정의 대소신료들이 다 환대하였으니 그때 접촉이 있었지 않나 짐작이 되나 이 역시 기록이 없다.

남명의 수제자 내암 정인홍은 구졸암 양희의 사위이다. 구졸암의 장

26) 盧禎, 『玉溪先生文集』, 「考從仕郎 行顯陵參奉 贈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府君行狀」, “少鞠于祖妣貞夫人金氏 特見鍾愛 欲以土田臧獲厚賜之 皆力辭不受”

자 서계 양홍주는 내암과 처남 자부지간이 된다. 내암은 장가들어 처가 향인 함양에 와서 살다가기도 했으니 처남 자부지간에 잘 지냈을 것이다. 그런데 남명이 었힌 하종악 음부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었다.

하종악 음부사건이란 진주에 사는 진사 河宗岳의 후처가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다. 1568년(선조 1)에 남명과 절친한 龜巖 李楨이라는 사친 출신 문신이 있었는데 朴啓賢이 경상감사로서 구암을 방문하자 구암이 박계현<sup>27)</sup>에게 남명 친구 초계 출신 黃江 李希顔의 재취부인 과부가 음행이 있으니 끝까지 추궁하여 죄를 물으라고 하였다.

감사는 초계 근처 수령 중에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 김해 부사 구졸암에게 위촉하였다. 구졸암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고 사위 정인홍이 이 사이 일을 잘 아니 같이 의논해 하겠다고 하니 감사가 허락하였다.

함양 집에 와서 정인홍을 부르니 정인홍이 달려와서 이 일은 바깥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고 남명이 막역한 친구이니 여쭙본 뒤에야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구졸암이 허락하여 정인홍이 함양에서 덕천에 사는 남명에게 달려와 고하니 남명이 화를 내며 구암이 자기 집안의 추문을 덮으려고 엉뚱하게 남의 애매한 일을 까박혀 황강의 집안에 재앙을 썩우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종악 후처 과부의 음행 사건을 말하였다. 하종악의 서얼 누이동생이 구암의 첩이어서 하종악 집안을 비호하려고 남의 집안일을 끄집어낸 것이니 황강 집안일은 가벼이 조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인홍이 돌아와 장인인 구졸암에게 고하니 구졸암이 경상감사 소재지로 달려가 정인홍의 말을 그대로 고하였다. 감사가 과연 하종악 일가

27) 朴啓賢: 1524(중종 19)~1580(선조 13). 호는 灌園. 1567년(선조 즉위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權撥·李彦迪 등의 신원을 계청했고, 이듬해 호조참판 등을 지냈다.

의 여종과 종을 체포하였다. 하종악의 후처의 증형제가 요로에 있고 권세도 있어 구암이 결탁하여 그 일을 무마시켰다. 끝내 그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명이 주동자라고 남명을 치죄하려고까지 하였다.<sup>28)</sup>

선조 2년(1569) 5월에는 경상 감사가 하종악 후처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 유생에 대해 죄줄 것을 아뢰자 조정에서 처벌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남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晉州) 유생(儒生)에 대하여 죄줄 것을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 진주의 고 진사(進士) 하종악(河宗岳)의 후처가 홀로 살았는데, 음행(淫行)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자자하였다. 처사(處士) 조식(曹植)이 우연히 그 일을 자기 문인(門人) 정인홍(鄭仁弘)·하항(河沆) 등과 말하게 되었는데, 인홍 등이 감사(監司)에게 통보하여 옥(獄)을 일으켜 다스리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고, 조식은 또 자기 친구인 이정(李楨)이 하(河)의 후처와 인척으로 그 일을 몰래 비호했다 하여 서신을 보내 절교(絶交)를 하면서 그의 죄상을 낱알이 거론하였다. 그리고 하항 등은 그 옥사(獄事)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긴 친구들을 데리고 하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감사는 하항(河沆) 등을 잡아 가두었다. 그러자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그들을 신구(伸救)했고 또 옥사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관(推官)들이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상이 경연에 나아가 입시한 신하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물으니, 대사헌(大司憲) 박응남(朴應男) 등이 아뢰기를,

“집을 헐어버린 유생들은 바로 무죄배들이지 유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후일에 또 다시 그러할까 염려됩니다.”

하였고, 대신 홍섭(洪暭)도 그 논의를 옹계 여겼으나 그 일이 끝내 실행되지 않았다. 영남(嶺南) 선비들이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몰아내는 풍습이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이황(李滉)이, 이정(李楨)이 서신으로 물은 사연에 답하기를, “친구 사이에 사소한 일로 서로 외면하여 화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서는 모를 일이다.”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서신이 세상에 전해지자, 정인홍은 이황을 추급하여 비난 공박하는가 하면 공격하는 글을 써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영남 선비들의 분당의 화근도 사실은 이 일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sup>29)</sup>

28) 曹植, 『南冥先生集』(『韓國文集叢刊』), 「與子強子精書〔鄭仁弘 附誌〕」.

29) 『宣祖修正實錄』 卷3, 「1569년(융경 3년), 5월 1일(갑진) 1번째 기사 / 경상

그 사건으로 남명이 최초 발설자로 낙인찍히고 이 일에 연루되어 붙잡혔다가 풀려난 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등 집안이 크게 난리가 났다. 남명은 구암이 자기 집안과 죽은 친구를 재앙에 빠뜨리고 음부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온갖 변명과 태도 번복을 자행한 잘못이었다고 하며 절교를 선언하였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후대에 남명과와 구암과로 갈리어 다투는 사이가 되었다. 구암과의 대표적 인물이 남명의 애제자 한강 정구의 문인이면서도 남명을 폄훼한, 구암의 손자 百忍齋 李鯤變(1551~?)의 손녀가 제수가 되는 白湖 林悌의 외손자 眉叟 許穆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여러 집안이 재앙을 당했는데 남명 집안뿐 아니라 구졸암 집안도 연루되어 내암 정인홍과 서계 양홍주는 처남 자부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어 양홍주와 그 동지 李賁는 상소하여 정인홍을 공격하는데 전력하였다. 함양의 내암 제자들이 서계를 반격하고 배척하여 서계는 서인으로 돌아서고 함양 지역사회도 서인과 북인으로 갈리어 상쟁하는 시대를 연 것이다.

### 3. 玉溪 盧禎과 玉溪時調公園

함양에는 왕의 시조비가 두 개나 세워져 있다. 상림 끝 뇌계공원에 성종시조비가, 지곡면사무소 앞에 있는 연지공원에 선조시조비가 세워져 있다. 뇌계 유희인은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로 함양이 낳은 대시인이다.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홀로 계신 모친을 걱정하여 매양 벼슬을 버리고 귀양하려고 하니 성종이 만류하는 정을 시조로 읊었다.

이 시럼 브되 갈다 아니 가든 못할손나  
무단(無端)이 슬튼야 남의 말을 드렀는야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닐너라.

---

감사가 남의 집을 헐어버린 진주 유생에 대해 죄줄 것을 아뢰다.

北望君臣隔 북쪽을 바라보니 임금과 신하는 떨어지고  
南來母子同 남쪽으로 오니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하네<sup>30)</sup>

위 시구는 성종의 뇌계 만류 시조에 대한 뇌계의 오언율시 답시 중 함련이다. 이를 시조로 읊었어야 하는데 한시의 대가는 시조를 짓지 않는가.

千里每窮南斗望 천리 길에 매양 부모님 고향을 바라보고  
五雲遙隔北辰誠 오색구름 멀리 북극성 향한 정성 막혔네<sup>31)</sup>

문경 새재를 떠나 함양 초입 육십령에 와서도 연군사친의 정은 변함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그 심정을 칠언율시로 읊었다. 위 구절은 그 제2수 경련이다. 아래는 옥계집에 실려 있는 선조와 옥계 및 옥계의 모친, 옥계의 제자 조종도의 시조 5수 전문이다.

오면 가라 흐고 가면 아니 오니.  
오노라 가노라니 불 날히 전혀 업니.  
오늘도 가노라흐니 그를 슬허 흐노라.<sup>32)</sup>

萬壽山 萬壽洞의 萬壽泉이 잇더이다.  
이물의 술을 비저 萬壽酒라 흐더이다.  
이 잔을 잡으시면 萬壽無疆 흐시리다.<sup>33)</sup>

30) 俞好仁, 『潘谿集』(『韓國文集叢刊』) 卷5, 「登鳥帖」, “凌晨登雪嶺 春意政濛濛  
北望君臣隔 南來母子同 蒼茫迷宿霧 迢遞倚層空 更欲裁書札 愁邊有北鴻”  
31) 俞好仁, 『潘谿集』 卷6, 「登六十峴」, “幾回逾嶺訪松楸 三十年來只此軀 地軸萬  
重騰汗漫 乾端四壁插虛無 長雲老雁吟中料 落日孤煙醉後圖 九月南荒秋色淨  
一鞭遊興滿江湖”(其一); “隱隱曉鍾靈覺寺 皤皤霜葉壁鷄城 馬知舊路行迢遞 木  
喜清秋下杳冥 千里每窮南斗望 五雲遙隔北辰誠 西風淡日催佳句 猶自孤吟滯  
客程”(其二).  
32)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御製歌 先生上章歸養(方渡漢江時 宣廟特製此歌  
寫于銀鈔 追遣中使以贈之).

日中金 가마고 가지 말고 니 말 드리.  
너는 反哺鳥라 鳥中之 曾參이니.  
오늘은 날 위하야 長在中天 ㅎ얏고다.

- 母夫人答歌

國家 太平호고 萱堂에 날이 긴제.  
머리흰 判書야기 萬壽杯 드리논고.  
每日이 오늘 갓트면 성이 무슴 가소리.  
아마도 一髮秋毫 聖恩잇가 ㅎ노라.

- 附次 (門人趙宗道號大笑軒)

가마고 독기 증싱 그 무어시 비앗바셔.  
九萬里 長天을 허위허위 가스논고.  
이제는 십니의 흔번식 수업수업 가렴으나.<sup>34)</sup>

개암 강익 선생이 당시 선비 신분으로 처음으로 남계서원을 창건하니 전대미문의 초창사업이라서 개척자에 대한 소인배들의 시기와 질시와 비방이 난무하여 이를 피해 31세(1553, 명종 8) 때 마천면 등구에 피신하여 양진재를 짓고 은거하며 산중 생활을 시조로 읊었다. 개암은 자신이 지은 시조 「단가삼결」을 44세(1566, 명종 21) 여름에 함양읍 서계에서 여러 문사와 유람할 때 직접 노래[시조창]로 불러 앙코르를 받은 듯하다. 개암은 별호를 송암이라 하였다.<sup>35)</sup>

1. 물아 어디 가나나 갈스길 미러셔라.  
뉘 누리 다 치와 지내노라 여홀여홀.  
滄海에 못 맞춘 전의야 근칠 줄이 이시라.

33)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進豊宴 獻萬壽山歌」.

34)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母夫人壽宴歌」.

35) 翼, 『介庵先生文集』, 「西溪唱酬 附金東岡唱酬錄序」, “松庵歌所製數闋 思致平遠 尤可玩賞 令人一唱三歎 歌罷 遂騎馬帶雨而歸”

2. 芝蘭을 갖고라 ㅎ야 호미를 두리메고  
 田園을 도라보니 반이나마 荊棘이다.  
 아히야 이 기음 묻다 밋여 히저들까 ㅎ노라.

3. 柴扉에 개 좃는다 이 山村의 기 뉘 오리.  
 댕넙 푸른디 봄새 울소리르다.  
 아히야 날 推尋오나든 採薇가다 ㅎ여라.

천령삼결인 구졸암은 시조가 없지만 청련은 옥계와 마찬가지로 시조를 남겼다. 그의 나이 16세(1535, 중종 30) 때 시조 「소상팔경」 8수를 지었다.<sup>36)</sup> 「소상팔경」 제1수만 소개한다.

蒼梧山 聖帝魂이 구름 조차 瀟湘에 느러  
 夜半 흘너드러 竹間雨 되온 뜻근  
 이 妃의 千年淚痕을 시셔 불가 ㅎ노라.

이들과는 상관없지만 함양군 유림면 국제리에는 고려 말 牧隱 李穡이 은거한 별장 터가 있는데 거기에 “蹄溪書齋”라는 길쭉한 표지석이 있고 그 제목 아래에 “李牧隱所築 姜私淑齋重修址”의 글이 있고 끝에 “乙卯四月日”이라고 새겨져 있다. 姜希孟의 후손 松菴 姜弼周(1621~1682)가 함양군수로 부임하여 칠언율시를 지어 회고·추모하였다. 『함양군지』에는 1474년(성종 5, 甲午, 檀紀3807) 경에 강희맹이 증수하였다고 하였다. 함련, 경련만 취하여 절구로 실어놓았는데<sup>37)</sup> 원래 칠언율시이다. 그 율시를 여기에 처음 소개한다.

36) 李後白, 『靑蓮先生集』, 「行狀宋時烈」, “嘗作瀟湘八景歌詞 傳播京中 或騰諸樂府 自是聲名益振 京師文士 皆遲其至 時年十六矣”  
 37) 『함양군지』, 「古蹟」, “蹄溪書齋 在郡南三十里花長山下(今菊溪里) 李穡 寓居時 有此齋 三八〇七年頃成宗時 姜希孟 重修 今遺址尙存焉 姜弼周 以希孟后孫 爲郡時 有詩(今無) / 「題詠」 蹄溪書齋 姜弼周詩曰 方塘土塞麻初藝 古岸沙崩樹半傾 桑梓今爲誰氏物 石淙猶送舊時聲”

「蹄溪村謹尋 先祖文良公寓居遺址」

古里荒涼春草生	황량한 옛 마을에 봄풀이 돋아나고
居民彷彿說遺名	주민들은 비슷하게 남긴 이름 말하네
枯塘土塞麻初藝	마른 연못 흙이 메워져 삼 처음 심었고
斷麓沙崩樹半傾	낭떠러지 모래 무너져 나무 반쯤 기울었네
桑梓今爲誰氏物	유산은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었나
石淙猶有舊時聲	돌에 떨어지는 물소리만 옛적의 소리 있네
依然杖屨經行處	지팡이 짚고 산보하시던 곳 여전한데
小洞無人雲自橫	작은 골짜기 사람 없고 구름만 걸쳐 있네

강필주는 사숙재 강희맹의 후손으로 전남 영광 출신이다. 생원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아가 1675년(숙종 1)에 보령현감을 지내고 61세(1681, 숙종 7) 때 1월에 함양군수에 임명되고 이듬해 1682년(숙종 8) 3월에 병으로 사퇴하여 돌아가다가 제한역[함양읍 조동마을]에서 향년 62세로 별세하였다.<sup>38)</sup>

강필주는 고창 사람인 11촌 숙부 姜時彦의 양자가 되어<sup>39)</sup>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고창군 성송면 巖峙 마을에서 살고 冬湖에 정자를 짓고 음영하였다. 그 유지가 남아 있다. 그 자손은 이후 고창 사람이 되어 다물정신을 가진 무신이며 시조, 가사 작가 勿欺齋 姜膺煥이 배출되었다.<sup>40)</sup>

목은의 별장은 태종의 공신 李叔蕃이 함양에 귀양 와 살면서 차지하지 않았나 추측되나 미상이다. 이숙번의 만사위 姜順德이 물려받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그 양자 私淑齋 姜希孟에게 전해지고<sup>41)</sup> 다시 그의 사위 蹄溪 金誠童에게 전해졌는데 그 이후는 어찌 되었나 미상이다.

38) 姜弼周, 「年譜」, 『松菴集』, 왕실도서관 장서각.  
 39) 尹鑑, 『白湖全書』(『韓國文集叢刊』), 「上殿奏事」.  
 40) 홈페이지 『고창.kr』, 「성씨와 인물-고창의 인물」. 참조.  
 41) 『端宗實錄』, 「단종 즉위년 임신(1452, 경태 3), 11월 5일(계해), 최종기사 / 이숙번의 처 정씨가 재산을 사위에게 주도록 한 남편의 유서를 고치는 일을 상언하다」.

김성동의 무덤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니 그의 신도비가 수동면 까막섬에 있었다. 신도비는 근세에 선영으로 옮겨갔으니 무덤도 천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성동은 사육신을 고발한 金碩의 아들로 강희맹의 사위가 되어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제계에 우거하여 호를 제계라고 하였다.<sup>42)</sup> 강희맹의 산소는 시흥시에 있고 연성재라는 재실도 있다. 그 뒤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87호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가 있다.

목은이 고려 말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읊은 시조가 바로 「백설이 자자진 골에」다.

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는 어니 곳에 피엿는고  
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흐노라<sup>43)</sup>

2014년 5월 16일에 한국 시조사랑 시인협회의 함양시조문학기행 및 시조학 세미나가 지리산문화관 초청으로 함양에서 실시되었다. 동회 부회장인 김윤승 관장의 안내로 위 세 곳[뇌계·옥계·개암]을 답사했는데 각기 시조공원으로 확장, 조성되면 이후 시조문학기행의 성지가 될 것이다.

#### 4. 靑蓮 李後白과 昇安寺 소나무 詩

이후백의 『靑蓮集』 보유에 「塔松」이라는 시가 있다.

一尺靑松塔畔栽    한 자 되는 푸른 솔 탑 곁에 서있는데  
塔高松短不相齊    탑은 높고 솔은 작아 가지런하지 않네  
傍人莫怪靑松短    옆 사람아 푸른 솔이 작다고 괴이찍어 말아라  
他日松高塔反低    다른 날에는 솔이 높고 탑이 도리어 낮으리니<sup>44)</sup>

42) 『함양군지』, 「姓氏」, “金誠童 安東人 文靖公碩之子 成宗朝 爲姜希孟婿 居郡南蹄溪”

43) 홈페이지 『꾸마이, 책에 빠지다』. 참조.

그런데 이 시가 이후백보다 16세 아래인 내암 정인홍의 『來庵集』 시편에 「詠松」이라는 제목으로 문구가 약간 다르게 실려 있다. 한 사람은 표절한 것이 틀림없다.

一尺孤松在塔西	한 자 되는 외론 솔 탑 서쪽에 있는데
塔高松短不相齊	탑은 높고 솔은 작아 가지런하지 않네
莫言此日松低塔	오늘날 솔이 탑보다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松長他時塔反低	솔이 크는 뒷날에는 탑이 도리어 낮으리니 <sup>45)</sup>

『내암집』의 해제에 “이 중 「詠松」은 11세 때 海印寺에서 독서하던 중 梁喜가 불러주는 韻에 따라 지은 것으로, 이 시로 인해 그의 사위가 되었다 한다.” 하였다. 양희가 해인사에 행차할 때 정인홍이 독서에 매진하며 행차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므로 양희가 기특하게 여겨 시를 지어 보라 하고 맘에 들어 사위로 삼았다는 고사가 생긴 것이다.<sup>46)</sup>

합천에 소나무 읊은 시가 널리 전해져 일제시대 해인사 前 住持 李古鏡 무고 사건도 있었다.<sup>47)</sup>

44) 李後白, 『靑蓮先生集』 卷1, 「塔松 幼時作」.

45) 鄭仁弘, 『來庵先生文集』 卷1, 「詠松」.

46) “11살 때, 해인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벼슬아치가 고을을 순시하느라 절에 들렀는데 선생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 운자(韻字)를 내어 글을 짓게 하니 (詠松詩) 한자 남짓한 한그루 소나무가 탑 서쪽에 있네 一尺孤松 在塔西 / 탑은 높고 소나무는 낮아 서로 가지런하지 않구나 塔高松短 不相齊 / 지금 소나무가 탑보다 낮음을 말하지 마소 莫言今日 松爲短 / 소나무가 자라난 다음 날엔 탑이 되레 낮아지리니 長松他日 塔反低” 하였다. 이 글을 본 벼슬아치는 선생의 영특함에 반하여 사위를 삼기에 이르렀으니 판결사 양희(梁喜)이다.” (홈페이지 『다음 블로그-우영의 블로그』, 참조.)

47) “남이장군의 시를 가지고 유자광이 역적혐의로 모함한 일과 같은 사건이 일제시대 합천에도 있었다. 정인홍의 시를 가지고 해인사 주지 변설호가 덕망 높은 전 주지 이고경을 일제에게 독립운동혐의로 모함한 것이다. ‘사람들이 소나무가 탑 밑에 있다고 이르지 마라 傍人莫道松低塔 / 훗날 소나

星湖 李瀼의 『星湖僊說』 제28권, 「詩文門」에 「정인홍 시[鄭仁弘詩]」라는 표제로 다음의 고사가 기재되어 있다.

정인홍은 어릴 때 산사(山寺)에서 글을 읽었다. 그때 마침 그 도의 감사(監司)가 당도하여, 밤에 글 외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더니, 바로 과부 집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기이히 여기고 데려다가 묻기를, “네 시를 잘 짓느냐?” 하니, 인홍은 잘 짓지 못한다고 사양했다. 감사는 탑(塔)가의 왜송(矮松)으로 글제를 내고 운(韻)자를 불러 주며 짓게 하였더니, 인홍은 즉석에서,

短短孤松在塔西	짧고 짧은 외로운 솔이 탑 서쪽에 서 있으니
塔高松下不相齊	탑은 높고 솔은 낮아서 서로 가지런하지 않네
莫言今日孤松短	오늘날 외로운 솔이 짧다고 말하지 마오
松長他時塔反低	솔이 자란 다른 날에 탑이 도리어 짧으리

라고 지었다. 감사는 깨닫고 감탄해 마지않으며 말하기를, “후일에 반드시 현달(貴顯)하리라. 그러나 뜻이 참람하니, 부디 경계하라.” 하였다. 그 후에 인홍은 남명(南冥)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세상에서 존대하는 바가 되었다. 그가 패륙(敗虜)됨에 미쳐서는 그의 문도(門徒)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비분강개(悲歌慷慨)하여 한결같이 나아가 벼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이 때문에 합천(陝川) 등지 여러 고을에는 관면(冠冕)이 대대로 끊어지고 사풍(士風)이 떨치지 못했으니, 이는 인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위의 『성호사설』에는 양희의 이름이 없다. 감사라고 했으니 양희는 아니다. 양희는 경상감사를 지낸 적이 없다. 성호는 어릴 때라고 하고 다른 글은 모두 정인홍 11세 때의 일이라고 했다. 정인홍이 11세 되던 해는 1546년(명종 1)으로 그 장인 구졸암 양희가 문과에 급제한 해이다.

---

무가 자라면 탑이 밑으로 가노라 松長他日塔遷低'라는 구절에 대해 일본 경찰이 '송'은 조선이요 '탑'은 일본을 지칭한 것 아니냐고 취조하며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이고경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였다.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합천 땅 그리고 쪽빛하늘』. 참조.)

판결사 양희라고도 했는데 양희는 1580년(선조 13)에 掌隸院 判決事가 되었고 그때는 정인홍이 45세이니 어불성설이다. 양희는 함양 사람이니 문과급제 영친연 행사를 벌였다고 해도 함양에서일 것이지 합천과는 상관없을 것이다. 구졸암이 경상감사나 합천군수나 영친연의 계제가 아니면 떠들썩한 행차를 벌여 장관을 외면하고 독서에만 전념하는 어린 내암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성호사설』에 이름 없는 감사라고 했으니 해인사의 감사행차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구졸암과 연관 지으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한다.

청련의 경우에는 소식적 절에서 공부하는데 관찰사의 떠들썩한 행차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독서에 매진하므로 관찰사가 신기하게 여겨 불러 시를 지어보라 하고 소나무를 깎아 얹은 것을 듣고 기특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사위가 된 이야기만 없다. 그러므로 청련 이후백이 어린 시절 절에서 독서할 때 감사 행차를 만났다는 고사로 풀이하면 문제가 없다. 그 절은 일두 정여창 선생 묘 밑에 있는 승안사일 것이다. 승안사 뒷산은 일두 선영으로 조성됨으로써 결국 폐사가 되었다. 지금 보물 제294호 승안사지 삼층석탑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만 남아 있다. 一蠹 鄭汝昌 墓域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68호이다. 일두 묘소는 명현의 묘소라서 경상감사가 함양에 오면 반드시 참배하는 성역이다. 그런 감사 행차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승안사에서 독서한다면 소나무를 얹은 기찬 아이의 고사가 발생할 수 있다. 청련은 1520년(중종 15) 생이고 내암은 1536년(중종 31) 생이니 16년 차이이다. 승안사라는 절에서 소나무 얹은 기찬 아이는 청련일 것이다.

#### IV. 結: 天嶺三傑의 特徵과 向後 課業

구졸암 양희, 옥계 노진, 청련 이후백 등 천령삼걸로 일컬어지는 3현은 당곡 정희보에게 동문수학한 죽마고우로 모두 함양군 지곡면(옥계·

청련)과 수동면(구졸암) 출생이다. 구졸암과 옥계는 함양 지곡에 묻히고 청련은 파주 선영에 묻혔다.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다들 효자이고 성리학자이다. 옥계는 효자 정려를 받았고 시호조차 文孝公이다. 옥계는 함양의 당주서원-유허비만 있다.과 남원의 창주서원에 향사되었고, 청련은 강진의 서봉서원-박산서원으로 개칭-에 향사되었다. 청련도 함양의 서원에 향사할 필요가 있다. 옥계도 다시 함양에서 향사할 일이다. 구졸암은 함양의 구천서원에 6군자로 같이 향사되었다.

구천서원을 2사당 체제로 개편하면 구졸암·옥계,·청련을 모시는 삼결사를 따로 세우고 기존 7군자는 육현사로 개편하여 향사하면 구졸암의 위상이 천령삼결로 바로 설 것이고 삼결이 사후 40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자리를 함께하는 명복을 누릴 것이다.

옥계와 청련은 시조를 남긴 시조시인이고 청백리이고 판서를 지낸 고관이다. 청련은 청백리의 위상에 맞게 文淸公의 시호가 내렸으나 구졸암만 시호가 없다. 문집도 옥계와 청련은 단행본을 남겼으나 구졸암은 『용성세고』에 한 부분을 차지하여 소략하다. 『구졸암집』의 단행본 간행이 필요하다. 구졸암은 벼슬이 참판에 그쳤으나 증직으로 판서를 받아 사후 위상은 삼결이 같아졌다.

천령삼결인 구졸암 양희와 옥계 노진과 청련 이후백은 판서급 인물로 학덕을 겸비하여 지역 문화와 중앙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천령삼결은 함양을 빛낸 인물로서 함양의 자랑스러운 인재배출, 덕성함양, 한문학, 선비문화의 모범·전형이라고 하겠다.

천령삼결과 다른 동문들을 포함하여 함양의 한문학맥 인물들의 자취를 기념하고 그 문화유산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시조문학을 공통 요소로 시조비를 곳곳에 세워 시조문학공원화를 통한 함양의 문화관광지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은의 은거처 제계서재 터에 목은 시조비를 세우고 그의 한시비도 세워 목은시조공원을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성종이 총애한 뇌계를 만

류하며 지은 시조비와 함께 뇌계의 충군효친 정을 담은 한시도 같이 시조로 번역해 비석을 세워 뇌계시조공원으로 확장했으면 한다. 선조대왕과 옥계 노진 선생의 시조비가 있는 연지공원을 확장하여 옥계와 대소현 등 『옥계집』에 있는 시조를 마저 비석으로 세워 옥계시조공원으로 조성하기를 소망한다. 여기에 옥계 효자정려비도 이견하면 금상첨화이다. 청련이 어려서 독서 공부한 승안사지에 「탑송」 시와 「소상팔경」 시조비를 세워 청련시조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개암 강익이 산중생활을 시조로 읊은 유적에 있는 양진재유허비 근처를 확장하여 개암의 시조 3수 단가삼결을 비석으로 세워 개암시조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학기행의 코스로 이바지했으면 한다.

그리하면 함양의 많은 문화유적지가 시조문학기행의 성지가 될 것이고 역사현장의 기념 명소가 될 것이고 잘 만들면 후대의 문화재도 될 것이며 문화관광 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시조문학공원 조성 사업이 조만간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參考 文獻>

- 『端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咸陽郡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姜應璜, 『白川先生遺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姜 翼, 『介庵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8, 한국고전번역원.
- 姜弼周, 『松菴集』, 왕실도서관 장서각.
- 盧 禎, 『玉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37, 한국고전번역원.
- 文景虎, 『嶧陽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續9, 한국고전번역원.
- 朴汝樑, 『感樹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續8, 한국고전번역원.
- 裊大維, 『慕亭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梁喜, 『龍城世稿』, 『九拙菴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俞好仁, 『潘谿集』, 『韓國文集叢刊』 15, 한국고전번역원.
- 尹鑑, 『白湖全書』, 『韓國文集叢刊』 123, 한국고전번역원.
- 李德懋, 『靑莊館全書』, 고전번역총서, 한국고전번역원.
- 李瀾, 『星湖僊說』, 고전번역총서, 한국고전번역원.
- 李後白, 『靑蓮先生集』, 『韓國文集叢刊』 續3, 한국고전번역원.
- 林薰, 『葛川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8, 한국고전번역원.
- 鄭秀民, 『天嶺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鄭仁弘, 『來庵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43, 한국고전번역원.
- 曹植, 『南冥先生集』, 『韓國文集叢刊』 31, 한국고전번역원.
- 周世鵬, 『武陵雜稿』, 『韓國文集叢刊』 26-27, 한국고전번역원.
- 김운승, 한시집 『咸陽九景』, 다운샘, 2008.
- , 역시집 『咸陽九景』, 다운샘, 2009.
- , 한시집 『지리산문학관33』, 그림과책, 2009.
- 경향신문, 「항맥 고장문화의 현장을 찾아 함양」(1984년 2월 25일자).

### Abstract

*West Andong(安東) East Hamyang(咸陽) and Chunryung Three Geniuses(天嶺三傑)*  
/ Kim Yun Su\*

Chunryung Three Geniuses[天嶺三傑] refers to three saints, Gujolam(九拙菴) Yangheet(梁喜)(1515~1581), Okye(玉溪) Nojin(盧禎)(1518~1578), and Chungryun(青蓮) Leehuback(李後白)(1520~1578). They were old friends and taught by Dangock(唐谷) Jungheebo(鄭希輔) together. Okye and Chungryun were born in Jigok-myeon in Hamyang and Gujolam was born in Sudong-myeon in Hamyang. Gujolam and Okye were buried in Jigok-myeon in Hamyang and Chungryun was buried in a family burial ground in Pa-ju. They entered government service as passing Samasi(司馬試)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y were Neo-Confucianism scholars and devoted to their parents. Okye received Jungrye(旌閭) as a devoted son and even granted a posthumous epithet of Munhyogong(文孝公). Ancestral shrines were set up at Dangju(糖州) lecture hall in Hamyang and Changju(滄州) lecture hall in Namwon to cherish Okye and another ancestral shrine was set up at Seobong(瑞峯) lecture hall in Gangjin to cherish Chungryun. It is considered to be moved to Hamyang. The other shrine for cherishing Gujolam is at Guchun(龜川) lecture hall in Hamyang as one of the six noble man.

Okye and Chungryun were poets and wrote 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s. They were people of great integrity and became a minister, top official. Chungryun granted a posthumous epithet of Munchunggong(文清公) because of his high integrity. However, Gujolam hasn't received a posthumous

---

\* Director of Jirisan Literary House / study@insan.com

epithet. Also, Okye and Chungryun authored a book of literature collection but Gujolam didn't write much and his writing has been left in a part of Youngseongsego(龍城世稿). A collection book of Gujolam should be published. His final status was a vice minister but he obtained a minister position after his death. So Chunryung Three Geniuses became a same position after all.

Chunryung Three Geniuses, Gujolam Yanghee, Okye Nojin, and Chungryun Leehuback, who had both learning and virtue, being the right man as a minister, influenced local culture and politics. They are the pride of Hamyang and the model of a scholar as being virtuous, erudite, proficient in literature.

**【Key words】** Chunryung Three Geniuses, Gujolam(九拙菴) Yanghee(梁喜), Chungryun(青蓮) Leehuback(李後白), Okye(玉溪) Nojin(盧禎), Sino-Korean literature of Hamyang

투고일 : 11월 4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